

# “새만금 예산 복원, 예산협의 첫 관문”

민주 김성주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尹정부 예산 독재·폭정”



령과 총리가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강조한 ‘하강 없는 지원’, ‘주요한 것은 개발 속도’ 등의 발언을 제시하며, 앞에서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과 총리의 기만적 언행을 비판했다.

성 재검토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지역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임을 환기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면 2025년 말 종료가 예상되는데, 20년 이후에 새로운 비확적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으로 대폭 줄어든 새만금공항과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부처가 요구한 1,647억의 세 배가 넘는 5,363억이 배정됐다. 새만금과 동일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명분으로 추진 시기조차 상대적으로 늦었던 가덕도신공항에 부처가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웃도는 예산을 풀이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로 규정,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이 국정감사 이후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임을 강조했다.

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과 총리의 기만적 언행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의 부처별별액 6,628억 가운데 78%에 달하는 5,147억을 삭감했는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삭감 규모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삭감의 근거 역시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총리의 적정

김 의원 따르면, 790억에서 66억

김성주 의원은 이번 새만금 예산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전복을 버리고, 전복을 희생해 다른 지역과 사업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국책사업을 포기하고 균형발전과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대통령의 폭정에도 문제 제기 없이 재검토 지시에 나선 국무총리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기록될 새만금 예산 삭감 폭격과 사태 수습을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대통령 사과와 국무총리 사퇴라는 문구에 담았다”며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이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 '도지사와 함께하는 정책 소풍' 26일 무주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자연 특별시 무주, 2024 무주 방문의 해'를 주제로 열린 '도지사와 함께하는 정책소풍'에 김관영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군민들과 대화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현재 “방송3법·노란봉투법 입법 절차 위법성 없어”

# 민주 “헌재 결정 존중... 법안 처리 속도”

국힘서 제기한 사건 모두 기각... “국회법 준수, 법안 처리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입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심사자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급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방송3법에 대한 현재 결정을 두고 “사릴 귀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라며 “방송3법 개정으로 혼란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공영방송의 독립과 방송의 자유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내로남불’은 그만 두고 공영방송의 악습을 타파한 여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당부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들을 모두 기각했다.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해 입법 절차에 위법성 없이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도 직회부했다. /뉴시스



박정규 전북도의회 의원은 26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 도민들의 민심을 알리기 위한 마라톤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 “새만금 예산 정상화 위해 직접 국회로 뛰고 걸을 것”

박정규 도의원, 마라톤 투쟁 대장  
내달 7일 범도민 총궐기대회에 맞춰  
“정부 불통·무능·무책임함 알리겠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도의원(임실)이 새만금 쟁점리 파행에 따른 책임 전가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알리기 위한 마라톤 투쟁에 나섰다. 박정규 도의원은 26일 마라톤 시작에 앞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대의가 담긴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주요 SOC 예산삭감에 대해 항의하며, 지난 9월5일 이후 의원 23명이 사발을 했고, 오늘까지 33명 의원이 참여해 52일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한 공약도 현실처럼 저버리는 이 정부에 과연 새만금과 전북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훈 기자

또한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 11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전북 범도민 총궐기대회까지 국회로 뛰고 걸으며 길거리에서 만난 국민들에게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부의 불통·무능·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알리겠다”고 마라톤 투쟁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정규 도의원의 이번 마라톤 투쟁은 26일 전북도의회를 출발해 다음달 7일까지 총 13일간 해남 공주 세종 천안 광덕, 수원 등을 거쳐 서울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 총 280km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일부 구간에서는 전북도의회 동료 의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전망대 건립을”

권오안 도의원

전북도의회 권오안 의원(완주·더불어민주당)은 26일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과 김규성 의원, 전북도 완주군 등 관계 공무원과 대둔산도립공원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주위를 답사하며 전망대 건립 방안을 모색했다. 권오안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는 농민군이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 대둔산의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일본군에 끝까지 항전했던 곳이었다”며,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에 저항하고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중이 주체가 되었던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의미가 크다”며,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원주·염재복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고창부안축협 합우명품관**

축산인의 실익도모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고창부안축협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한우명품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길 13  
예약문의 : 063-563-6001

**부안한우명품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변영로 85-1  
예약문의 : 063-581-2349

## 남원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진행

남원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생존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추진됐으며, ‘충북 단양구경시장’ 안병환 상인회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단양구경시장은 한때 큰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대표적 관광형 시장으로 지역 특산물인 마늘과 연계된 다양한 먹거리가 최근 관광객들에게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또한 관광인프라와 전통시장과의 연계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으며 적용할만한 사례이다. 첫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남원센터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하여 공설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5일 진행된 공설시장 상인 대상 양구경시장 안병환 상인회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강인식 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